



이승엽 4호 홈런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30·요미우리)의 홈런포가 1주만에 폭발했다. 이승엽은 16일 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원정경기에서 솔로홈런 한 방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요미우리가 경기를 주도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1-인 4회초 선두타자 니오카가 우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두번째 타석에 나선 이승엽은 요시미가 두번쩨이나 몸쪽 위험구를 던지며 견제했지만 1루수 글러브를 스쳐 빠지는 내야안타를 치고 나가 무사 1, 2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5타수 2안타 2타점 맹타 요코하마전 팀승리 주도



루키 이선화 16언더 준우승

이선화가 16일 라스베이거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다케후지클래식 마지막라운드 2번째 홀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리고 있다.

KIA "5선발이 문제"

이동현 부진...현대에 0대4 패

"투구를 열어보니 역시 5선발이 문제"를 시전 KIA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마땅한 5선발이 없다는 점이다.

서정환 감독도 지난 6일 선발 엔트리를 발표 때 "4선발은 괜찮은데 5선발이 없어 이동현을 잠정적으로 결장한 상태"라며 5선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16일 KIA는 수원에서 열린 현대와의 원정에서 '5선발' 이동현의 부진과 방망이가 터지지 않아 0-4로 패했다.

이날 서 감독은 상대가 올 시즌 최악체로 꼽히는 현대라는 점에서 과감히 이동현을 마운드에 내세웠다. 하지만 서 감독의 기대는 1회에 여지 없이 무너졌다.

이동현은 1회초 1,2번을 풀라이 아웃으로 가볍게 처리했지만 2사 후 송지만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갑자기 제구력이 흔들렸다.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아내면 됐지만 서튼과 이승용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만루위기를 자초하더니 다음타자 정성훈에게 만루포를 허용했다. 마운드가 불안해서인지 KIA 타선

◇16일 수원경기

Scoreboard for KIA vs Hyundai match showing runs, hits, errors, and innings.

- ▲승리투수=장원삼(1승1패)
▲패전투수=이동현(1패)
▲홈런=정성훈 1호(1회·4점·현대)

◇프로야구 중간 순위 (16일현재)

League standings table with columns for rank, team, wins-losses, ERA, and games played.

도 현대의 '대졸 신인' 장원삼에게 8이닝동안 4안타의 빈타에 허덕였다.

SK는 대전원정 경기서 한화에 8-2로, 롯데는 LG에 6-5 진땀승을 거뒀다. 삼성은 두산에 3-5로 패했다. 한편 KIA는 지난 15일 현대전서 한기주가 선발로 나왔으나 4.2이닝동안 6안타 3실점해 2-3으로 패했다.

대통령배 고교야구 개막

광주 진흥고-경기고 오늘 첫 경기

2006년 고교야구 시즌 시작을 알리는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7일 동대문구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25일까지 9일만 열리며 지난해 우승팀 광주 동성고를 비롯, 서울지역 예선 1위 덕수정보산업고 등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27개교가 출전, 우승트로피를 놓고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 진흥고와 경기고가 17일 오후 1시부터 개막전을 치른다.



16일 오후 수원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현대-기아 경기에서 8회말 무사 현대 송지만 타석 때 전준호가 도루를 시도하다 2루에서 아웃되고 있다.

오초아 19언더 우승

LPGA 다케후지클래식 최종

'루키' 이선화(2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케후지클래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선화는 16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골프장(파72·6천5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보기 없이 버디 6개만 속내내면서 6언더파 66타를 쳐 3라운드 함께 16언더파 200타로 3타차 단독 2위에 올랐다.

올해 2차레나 연장전에서 우승 문턱에서 주저 않았던 멕시코의 로레나 오초아가 최종 함께 19언더파 197타로 1~3라운드 내내 선두를 지킨 끝에 시즌 첫 우승컵을 안았다.

특히 올해 LPGA 투어에 데뷔, 6개 대회에 출전한 이선화는 필즈오픈과 마스터카드클래식을 포함한 이번 대회까지 3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신인왕 레이스에서 우위를 확실하게 점했다.

이선화는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1개의 보기만 범했을 뿐 2,3라운드는 보기 없이 버디만 낚아채는 안정된 플레이를 펼쳤다. 드라이버샷 평균 거리는 280야드.

이번 시즌 이선화는 투어 전체 선수 중 버디수가 72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홀당 퍼트수는 1.69개로 3위에 올랐다.

이날 대회에는 모두 29명의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들이 출전, 시즌 1승씩을 올린 김주미(22·하이트맥주), 이미나(25·KTF)에 이어 '한국 군단'의 3승을 기대했으나 어렵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미현(29·KTF)이 함께 12언더파 204타로 5위를 차지했고, 장정(26·코브라골프)과 강지민(26·CJ)은 함께 9언더파 207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이지영(21·하이마트)은 함께 7언더파 209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올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첫날 단독 2위에 이어 2라운드에서 5위를 지켰던 안시현(22)은 마지막날 한꺼번에 4타를 잃어 공동 24위까지 미끄러졌다.

아마추어 강성훈 우승

롯데스카이힐오픈골프 최종

아마추어 국가대표 강성훈(연세대·사진)이 한국프로골프 2006년 SBS코리언투어 시즌 개막전 롯데스카이힐오픈골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강성훈은 16일 열릴 예정이던 대회 최종라운드가 대회장인 제주 서귀포시 스카이힐골프장(파72·7천168야드)에서 몰아친 강풍 탓에 취소되면서 3라운드 함께 2언더파 214타의 성적으로 우승컵을 안았다.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02년 뉴질랜드 교포 이승용이 매경오픈을 제패한 이후 4년만이다.



아마추어의 프로 대회 우승은 통산 5번째. 우승 상금 6천만원은 이븐과 216타로 단독 2위를 확정된 신용진(44·LG패션)에게 돌아갔다.

Advertisement for Haratech chairs, featuring '의자의 혁명 아라체어' and '15년 2천만'.

Advertisement for Elcheek Green (엘체이크린) water purifiers, featuring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